



프리킥을 준비하는 이강인(왼쪽)과 손흥민.

손흥민·이강인 선발 출전... 황희찬은 '조커'

내일 새벽 한국 - 브라질 16강전

아시아를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고의 골잡이로 우뚝 선 손흥민(토트넘)과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월드컵 16강전에서 정면충돌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벤투호 공격의 중심에는 이번에도 손흥민이 설 전망이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폭발하며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골잡이로 인정받는다.

네이마르도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22골을 넣었으나, 프랑스 리그는 EPL보다는 한 수 아래 리그로 평가된다.

한국 손흥민-브라질 네이마르

EPL·리그1 골잡이 대결 관심

조규성 원톱·이강인 미드필더

황희찬은 후반에 투입될 듯

손흥민과 네이마르는 프로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은 없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서만 2차례 대결해 네이마르가 판정승했다.

첫 대결은 2013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평가전이다. 주전이었던 네이마르는 프리킥 골을 터뜨리며 브라질의 2-0 승리에 앞장섰고, 손흥민은 후반 교체로 투입됐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2019년 11월에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과 브라질이 평가전(한국 0-3 패)을 치렀다. 손흥민은 경기에 선발로 나섰지만,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해 맞대결이 불발됐다.

올해 맞대결에서는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득점하지 못했고, 네이마르는 발을 다친 직후에도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으며 브라질의 승리에 앞장섰다. 브라질 대회에서 1골, 러시아 대회에서 2골을 넣은 손흥민이 이번에 브라질을 상대로 득점한다면 안정환, 박지성(이상 3골)을 넘어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서게 된다.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상태가 완전히 않은 황희찬이 이번에도 후반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이재성(마인츠)이 우측 공격수로 나서고 조규성(전북)이 원톱으로 선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브라질전에서 골 맛을 본 황희찬(울림

피아코스)가 조규성 대신 선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황희찬은 지난 10년간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넣은 유일한 한국 선수다.

이강인(마요르카)이 포르투갈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선발 출격해 황인범(울림피아코스)과 함께 공격 2선 중앙에 설 전망이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정우영(알사드)이 나서고,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진수(전북), 김민재(나폴리), 김영권(울산), 김문환(전북)이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가 장딴지 근육 부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포르투갈전에서처럼 권경원(갑바 오사카)이 김영권과 중앙수비를 맡을 수도 있다.

골키퍼 장갑은 변함없이 김승규(알사바)가 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연장전까지 간다면, 승부차기에 대비해 선방에 강점을 보이는 조현우(울산)를 교체 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황소' 16강 이끌다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황희찬이 관중석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찬 첫 득점포 ... 포르투갈전 2-1 승리

부상으로 월드컵 조별리그 두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보아 했던 '황소' 황희찬(26·울버햄프턴)이 출전 기회만 기다렸다는 듯 득점포를 가동, 한국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황희찬은 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한국의 2-1 승리에 앞장섰다.

후반 20분 이재성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은 그는 후반 46분 손흥민의 패스를 오른쪽 눈소름 솟으며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자신의 A매치 50번째 경기에서 터트린 10번째 골이다.

첫 월드컵이던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선 득점이 없던 황희찬의 월드컵 본선 첫 득점이기도 하다.

이날 승리를 따낸 한국은 극적으로 H조 2위(승점 4·1승 1무 1패)에 올라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황희찬은 앞선 조별리그 두 경기에선 초조한 마

음으로 경기를 지켜보지만 해야 했다. 포르투갈전에서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출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렸으나, 황희찬은 필요한 순간 등장해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

특유의 스피드와 힘을 활용해 포르투갈의 측면을 파고들었고, 천금 같은 결승골까지 책임졌다.

최고의 활약으로 경기 최우수선수인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layer of the match)에 뽑힌 황희찬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16강에 올라오는 팀은 모두 강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드리는 게 목표"고 말했다.

다. /연합뉴스



브라질, 부상에 '신음'

지난달 24일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쓰러진 네이마르. /연합뉴스

제주스·텔리스 '아웃' ... 네이마르 발목 부상

벤투호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맞붙게 된 우승 후보 브라질이 선수들의 줄부상에 신음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축구협회는 3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알렉스 텔리스(세비야)와 가브리엘루 제주스(아스날)가 이날 오전 오른쪽 무릎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부상 정도를 확인했고, 카타르 월드컵 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브라질 매체 글로부도 "공격수 제주스와 센터백 텔리스가 월드컵에서 빠진다. 두 선수 모두 검사 결과 오른쪽 무릎 부상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텔리스는 전날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메룬과 월드컵 조별리그 G조 3차전(브라질 0-1 패)에 선발 출전했으나 상대 선수와 충돌한 뒤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후반 초반 눈물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벗어났다.

제주스는 선발로 나서서 64분을 소화했는데, 역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다.

글로부스는 "제주스는 아스날에서 났 때부터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회복에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남은 월드컵 경기 출전은 어려울 것"이라

고 전했다. 이어 "텔리스는 상태가 더 좋지 않다. 아직은 아니지만 심한 경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강호' 브라질은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선수 5명을 잃었다.

주축인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세르비아와 1차전을 치르다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이후 두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다닐루와 알렉스 산드루(이상 유벤투스)도 각각 발목, 엉덩이 근육을 다쳐 카메룬전에 결장했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브라질축구협회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훈련 영상을 보면 네이마르는 이날 카타르 도하의 대표팀 훈련장인 알라비 SC 스타디움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G조 1차전(브라질 2-0 승)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네이마르가 이후 팀 훈련장에서 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마르는 조깅과 볼 돌리기로 몸을 풀었고, 과 원형으로 둘러서서 이동하며 발이나 가슴, 머리로 볼을 받아내는 운동도 함께 소화했다. 막바지에는 그가 슈팅하는 장면도 나왔다. /연합뉴스

"고맙다 호날두" ... 쏟아지는 비난·굴욕



지난 3일 오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전반 27분, 이강인의 코너킥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등에 맞고 골문 앞에 떨어져 김영권의 동점골 '어시스트'가 되고 있다(왼쪽). 전반 42분에는 비타나의 중거리슛을 김승규가 막아낸 뒤 흘러나온 볼을 호날두가 다이빙헤딩슛으로 연결했으나 크게 빔나갔다. /연합뉴스



벤치로 돌아온 벤투

선수·감독으로 월드컵 16강전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인 파울루 벤투(53) 감독이 선수들처럼 벅찬 심정으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준비한다. 포르투갈 태생으로 이번 월드컵 16강에 오른 팀 중 유일한 '외국인 사령탑'인 벤투 감독은 선수와 감독 이력을 통틀어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전을 맞이한다. 포르투갈 프로리그 등에서 17년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벤투 감독은 1992~2002년 자국 대표로 10년간 뛰었다. /연합뉴스

월드컵 16강전

6일(화) ※한국시간 기준

	일본 vs 크로아티아	
	00:00	
	브라질 vs 대한민국	
	04:00	

자료 : FIFA